

하루를 시작하며



김인 시인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 AI와 인간이 대결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가수와 모창 AI가 가려진 무대 뒤에서 함께 노래를 불렀다. AI는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알람과 날씨, 뉴스까지 인공지능 디바이스에 물어보는 모습은 이미 익숙하다. 또한 세상에 없는 이를 눈앞에 보여주고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도, 그림을 그릴 수도 없는 예술가를 재현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익숙한 듯 TV를 보다 노래 사이사이 숨소리마저 똑같은 AI목소리에 잠시 놀라고는 순간 등골이 서

공존하는, 존재의 의의

늘해졌다. 과연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우리 삶을 변화시킬까. 이렇다 정 말 인간의 모든 역할을 기계가 대신 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애초에 예술과 기술은 하나의 뿌리에서 기인했다. 17세기 이후 근대 과학이 발전하며 과학과 예술은 멀어졌지만 현대에 과학과 예술은 다시금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가는 다양한 가지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기존의 컴퓨터는 정해진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작동했지만 현대의 AI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조합하여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린다. 사람의 뇌처럼 학습을 하고 모방과 융합의 과정을 거쳐 창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AI 딥러닝 기술은 문학, 미술, 음악의 경계를 무너트린 새로운 예술의 미래를 열었다. AI화가 '오비우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AI화가 '더 넥스트 렐브란트', 그

리고 세계 최초로 팝송을 제작한 AI '플로우 머신즈'까지 조만간 우리는 그때그때 듣고 노래와 음악을 AI음악가가 들려주게 될 것이다. 바둑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예술도 과연 그러할까. 혹은 딥러닝 기술이 예술가의 창작력을 자극하고 함께 협업하여 새로운 예술의 미래를 개척하게 될 것인가. 물론 지금도 AI와 예술의 만남은 일상 곳곳에 스며들었으나 진화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이러한 의문 뒤에는 설렘보다 어쩔지 쓸쓸함이 밀려왔다. 그것은 아마도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써 느껴지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이러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AI가 만든 작품을 대중이 만족하고 즐긴다면 예술도 받아들이어야 하는지, 단지 기계적인 학습에 기인했으므로 자신만의 감성과 의미가 담긴 문화예술과 차별성을 두어야 하는지 말이다.

AI시대, 문화예술은 다양한 형태로 확장 변형되고 있다. 변화에는 많은 질문과 숙제가 뒤따른다. 모든 변화는 삶과 연결되어 있고 궁극적인 목적은 일상을 윤택하게 만드는 길로 흘러가야 하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다. 예술 작품을 통해 얻는 다양한 감동들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공존해야 한다면 각각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이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삶을 이롭게 만드는 도구로 쓰여야 하기 때문이다. 가수와 모창AI의 대결은 가수의 승리로 끝났다. 인간이기에 순간의 감정이 노래 마디마디에 묻어났다. 지금까지 예술은 그러했다. 뚜렷하게 정의내릴 수 없고 그리하여 전복적이고 여전히 바닥을 볼 수 없는 미궁 같은 것. 앞으로도 삶이 지속되는 동안 그러하지 않을까.

사설

지역감염 불안 여전, 방역수칙 잘 지켜야

올해 설 연휴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여서 3차 대유행이 급속도로 번질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한겨울에 귀성객과 관광객이 대거 몰려드니 어쩌겠는가. 그래도 다행이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게 됐다. 연휴기간 15만명이 넘는 관광객과 귀성객이 제주를 다녀갔지만 우려했던 대규모 감염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제주지역에서는 설 연휴 사용연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0시 기준 제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없었다. 물론 설 연휴기간 우려스런 조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주에 오는 귀성·관광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난 10일 도내에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어 연휴 첫날인 11일에도 4명이 발생하면서 이를 연속 확진자가 나와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하지만 남은 연휴

(12~14일)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본다. 연휴기간 진단 검사량이 평소와 비해 적은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2주간은 마음을 놓아선 안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입도객과 수도권을 방문했던 도민이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당초 예상보다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은데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지역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이유다. 게다가 지난 15일부터는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도 1.5단계로 완화됐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완전히 풀린 것이다. 그런만큼 도민 스스로가 방역수칙을 더욱 더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총체적 난국 제주 경제, '해법' 뭘까

제주 경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총체적 난국이다. 관광지 제주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며 관광객 급감에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실물경제 거의 전 부문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새해 백신접종과 코로나19 3차 대유행 진정 등을 이유로 지역경제 회복을 점치는 시각도 있지만 도정 주도의 경제활성화 시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제지표로 본 제주 경제는 총체적 난국 그 자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최근 도내 실물경제 동향'을 보면 작년 4분기 소매 판매액지수는 전년동기보다 32.7%가 감소했다. 관광객수 감소에 따른 면세점 판매액지수 73.4%와 슈퍼마켓·편의점 3.2% 각각 줄어든 탓이다. 4분기 서비스업 생산지수도 9.4% 떨어졌다. 건설투자도 작년 12월의 경우 전 년동월 대비 15% 줄었다. 도내 실업률은 지난해 2.5%를 기록,

지난 2005년 2.5%를 보인 후 최저치에 달했다. 올 1월 실업률은 5.2%까지 치솟아 월별 기준으로 지난 1999년 7월 4.4%를 웃돌만큼 최악이다. 지역경제 난국은 코로나19 장기화, 관광객 급감, 소비침체 등에 따른 결과다. 지역경제가 '끝없는 추락'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 경제회생은 '정적 타이밍'을 '생명'으로 하는 만큼 때를 놓치지 않도록 적기 시행에 주력해야 한다. 도정과 도관광협회, 제주경영자총협회, 제주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총력을 다해서 나서야 할 이유다. 지역경제 활성화 '단골메뉴'로 꼽히는 소비와 투자대상 사업에 산 일정보비 이상 조기 집행,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활용,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외에 관련 생산지수도 9.4% 떨어졌다. 건설투자도 작년 12월의 경우 전 년동월 대비 15% 줄었다. 도내 실업률은 지난해 2.5%를 기록,

뉴스-in

제주 출신 전 국회의원 마사회장 맡나

차기 마사회장 낙점설 판지수는 지난 1월 104만7448에서 318.25% 상승한 438만921로 분석. 이번 평가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날 16일까지였으며, 해당 평가에서 줄곧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던 제주은행이 깜짝 1위에 올라 눈길. 이태훈기자

제주은행 브랜드평판 1위

○...제주 향토 기업인 제주은행이 지방은행 브랜드평판 1위를 차지해 주목.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지방은행 브랜드평판 2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은행의 브랜드평

판지수는 지난 1월 104만7448에서 318.25% 상승한 438만921로 분석. 이번 평가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날 16일까지였으며, 해당 평가에서 줄곧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던 제주은행이 깜짝 1위에 올라 눈길. 이태훈기자

'서귀포in정' 인기 절정

○...서귀포시 공식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이 운영 3주만에 매출 2억5000만원을 돌파하며 성장세.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서비스 시작 이후 지난 4일까지 서귀포in정에 1일 평균 1300명 이상 접속했고, 입점농가 상품 5200여건이 판매되며 매진 사태로 인기 절정. 시 관계자는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경쟁력은 고품질 만감류와 해삼 인증 업체 위주의 가공식품 업체 등 높은 입점 기준을 유지하며 구매 고객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분석. 백귀탁기자

열린마당

갈등과 사회적비용



문석부 수필가

갈등을 낸다는 것이다. 사회는 의견 대립과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 이러한 갈등이 사회발전의 기어였다가 된다. 하지만 갈등이 너무 지나치면 그에 따른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기도 한다. 제2공항은 도민 2000명과 성산지역주민 5000명을 설문조사하여 결정한다고 하는데 원래는 도민전체가 참여하는 주민투표를 결정하는 게 맞지만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 때문이라면 20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수용해야 된다고 본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하여 5년여를 끌어온 갈등이 해결됐으면 하고 행정당국은 하루빨리 준비해야 하겠다. 반대가 많이 나오면 해저터널 건설이나 대형 여객선을 운항하는 것도 검토하고 찬성이 많으면 환경과 사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곳곳 지하에 산재되어 있는 동굴들과 희귀종 동·식물 보호대책이 우선과제 마땅하여야 하고 토지수용 등으로 정체성을 잃을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송창우(제주와 미래 연구원장. 前 제주MBC 보도국장) 어머니 인등장씨 윤순(향년 88세)께서 서기 2021년 2월 15일 20시 48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2월 17일(수요일)
▶발인일시: 2021년 2월 18일(목요일) 오전 9시 30분
▶발인장소: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실
▶장 지: 오라동 선영
아들 송창우 며느리 이정희
창기 강경숙
창훈 양윤자
딸 송경선 사위 박노재
손자 송상목 손녀 송수연
상현 수진
상문 유빈
상원 박지영
\*연락처: 송창우 010-4230-9334

부고 변명호(한울 긴병봉사회 회장) 어머니 강병생(향년 96세)께서 서기 2021년 2월 15일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2월 17일(수요일)
▶발인일시: 2021년 2월 18일(목요일) 오전 9시
▶발인장소: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1분향실
▶장 지: 신도리 선영
아들 변명호(배) 며느리 허경숙(배)
딸 변명순(배) 사위 허경숙(배)
손자 변명준(배) 사위 허경숙(배)
외손자 김성준(배) 사위 허경숙(배)
강태웅(배)
전부재
\*연락처: 변명호 010-2777-6277
김창호 010-3691-7292

부고 김태형(前 중등교장) 어머니 여산 송씨 농옥(향년 100세)께서 서기 2021년 2월 15일 16시 5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2월 17일(수요일)
▶발인일시: 2021년 2월 18일(목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중앙병원(이호동 소재) 장례식장 6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아들 김태형 며느리 김성옥(배)
딸 김명렬 사위 홍충기
김명신 김온상
\*연락처: 김태형 010-9435-1747
홍충기 010-3699-7406
김온상 010-5227-4805

부고 이호중 어머니 한양조씨 성주(향년 96세)께서 서기 2021년 2월 16일 10시 3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2월 17일(수요일)
▶발인일시: 2021년 2월 18일(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발인장소: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분향실
▶장 지: 복춘리 공동묘지
아들 이호중 며느리 김순덕
(배)성종 이옥희
손자 이태영 손부 신소영
태윤
태호 김도원
태경 한은주
\*연락처: 이호중 010-2690-4199
이태호 010-4696-3785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인등장씨 숙순(향년 93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뵈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2월 17일
남편 이종석
아들 이영주 며느리 김점애
영철 황애숙
영재
영준 김은희
영상 성의현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곡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모를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